



“다산이 실현코자 했던 새 나라 실천 적기” 다산연구소 ‘경세유표 저술 200주년 강좌’

다산연구소(이사장 박석무)와 강진다산실학연구원(원장 김도형)은 지난 26일 강진아트홀에서 ‘경세유표 저술 200주년 기념 학술강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학술대회는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유배생활 중 ‘경세유표’를 저술한 지 2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다산 정약용, 강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다산 정약용은 지난 1817년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과, 뜻있는 선비로서 방관할 수 없다는 사명감에 “오래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자”(新我之舊邦)를 취지로 ‘경세유표’를 저술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석무 이사장은 경세유표가 담고 있는 개혁의 내용을 15개 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해 새 정부가 나아갈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정호순 서울대 규장각 연구원과 김용홍 연세대 국학연구원,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 김선희 이화여대 인문과학원 연구교수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 이사장은 “촛불로 대변되는 국민의 힘으로 다산이 실현하고자 했던 새로운 나라를 실천할 적기”라며 “기득권층의 저항을 차단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공직자를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언론학회 ‘언론개혁방향’ 토론회



광주전남언론학회(회장 김기태)는 30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광주전남기자협회 후원으로 ‘새 정부 출범과 언론개혁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 제공>

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소록도병원 봉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전기사랑봉사단(회장 전연수·봉사단장 정병섭)은 최근 국립소록도병원 병동과 주민을 대상으로 전기 시설 점검과 LED 등기구 교체 등 봉사 활동을 했다. <전남도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축

▲하태욱(전 여수경찰서장)·김태연씨 장남 일군 장윤식·김오례씨 장녀 수희양 =6월 3일(토)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봉웨딩홀 2층 모던홀.
▲신영숙씨 장남 김효민군 안효윤·박용자씨 딸 지미양=6월 3일(토) 낮 12시 30분 순천 예코그라운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등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6월 5일(월)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동구 대인동 화랑공회관 062-224-1800.

종친회

▲재광(광주전남) 청추한씨 별좌공파 창립 총회=6월 1일(목)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21-10 미식가, 문의 총무 한재운 010-8330-7183.

알림

▲월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광주서구중동관리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서구지역 중독 및 정신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상담 금호복지관 062-383-0205. 향촌복지관 062-373-0207. 쌍촌시영복지관 062-373-0203.
▲최창렬 전설음악교수 강좌=색소폰, 기타, 재즈 피아노 등 무료강의(초보환영).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평생교육원, 매주 일요일 오후 2시~4시 강의. 문의 010-4617-6078.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모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미혼양육모 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062-222-9349.

모집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중장년세대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 참가자=스마트워크 & 오피스(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중년들의 몸퍼기운동(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생애설계 이해와 방향(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광주 광산구 소촌동 232-2. 광주시공무원교육원 4층 강당, 문의 062-600-5242.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강좌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설현차문화연구원=독자,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장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일

201호 **이이훈**님(여/77세)
子/子婦 : 나경순, 장구/고미애, 상중, 성민/유현아
夫婿 : 라극단
●발 인 : 5월 31일 ●연락처 : 227-4381
●장 지 : 영락공원

402호 **해김미숙**님(여/64세)
子/子婦 : 윤성훈/박예숙, 상훈/김정화
夫婿 : 윤성희/최종민
●발 인 : 5월 31일 ●연락처 : 227-4383
●장 지 : 영락공원

101호 **이이숙**님(여/72세)
子/子婦 : 고수영/박춘자, 영영/최영숙
夫婿 : 고미숙/최인수
●발 인 : 5월 31일 ●연락처 : 227-4000
●장 지 : 영락공원

301호 **최장세희**님(남/84세)
子/子婦 : 조희선, 장 기/강연희, 준환/김승희
夫婿 : 장일미/김동훈, 이미/이준환, 순/홍연
夫人 : 박영심
●발 인 : 5월 31일 ●연락처 : 227-4382
●장 지 : 고흥도암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제길

‘블라인드 레스토랑’을 아시나요?

‘어둠 속의 빛 사회적 협동조합’ 서구문화센터내 운영 시각장애인 체험하는 식사공간 ... 2주에 한번 문 열어 김갑주이사장 기금마련 출판기념회도... 내년 상시 개원

여기 저기서 수저·젓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도사락 하나 깨끗이 비우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김치가 함께 놓여 있는데도 밥만 먹는 사람도 있다. 모두 식사를 제대로 못해 절절 맨다. 광주 서구문화센터 구내식당에서는 이런 풍경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시각 장애인과 같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식당 이름은 ‘블라인드 레스토랑’(어둠속의 특별한 체험)이다. 캄캄한 장막으로 사방을 둘러쳐 불빛 하나 없는 철축 같은 어둠의 식당이다.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교감하기 위해 마련한 이색 공간이다. 광주에서는 유일하다고 한다. ‘어둠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갑주·이하 협동조합)에서 꾸리고 있는 이 식당은 지난 1월부터 2주에 한 번씩 문을 연다. 입문하면서 비장애인들 발걸음이 늘고 있다. 단순히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추억을 남기는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점이 매력이다.

음악가가 클래식 연주도 곁들인다. 도사락 한 끼 식사 비용은 1만원이지만, 메뉴에는 저렴한 배려가 깃들여 있다. 시각에 의존해 작동하는 몸의 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후각과 미각 등을 느낄 수 있도록 식단을 짰다고 한다. ‘캄캄이 레스토랑’을 찾은 이용객들은 특별한 경험을 메모로 남기고 있다. ‘생각 이상으로 정말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이 닥치지 모르지만 오늘 경험으로 하루하루 뜻깊게 소중하게 보내겠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힘들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블라인드 레스토랑은 개점 이후 내리 적자다. 식사비 1만원이지만, 클래식 연주자, 사회자 등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어서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한다. 협동조합에서는 장기적으로 블라인드 레스토랑을 매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2주에 한 번 홀로 운영한 뒤 9월부터 1주간으로 간격을 좁혀 내년부터는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급자금이 없어 서구문화센터 구내 식당을 빌려쓰고 있기 때문에 내부 인테



시각장애인들이 블라인드 레스토랑에서 강성규씨의 클라리넷 연주를 들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다. 실제로는 철축 같은 어둠의 공간이지만 활영을 위해서 불을 켜놓았다. <‘어둠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리어 등 고객들을 배려한 공간을 꾸밀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협동조합에서는 이미 상표등록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식당 이름을 바꿀 계획이다. 가칭 ‘어둠 속의 미(味) 찾아’(터드미)로 개칭하려고 한다. 블라인드 레스토랑은 ‘장애인 CEO’로 불리는 김갑주 광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장이 산과 역을 했다. 그가 만든 ‘어둠 속의 빛 사회적 협동조합’은 블라인드 레스토랑의 운영주체다. 김 회장은 30일 시각장애인 체험시설인 ‘어둠 속의 빛’ 건립을 위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열

었다. 블라인드 레스토랑 운영을 맡고 있는 윤치순(49·어둠 속의 빛 사회적 협동조합 팀장)씨는 “대부분 이용객이 식사를 어려워 하면서도 ‘시각장애인들의 아픔을 알겠다’고 말해줄 때 보람을 느낀다”며 “사람이 79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무려 7만6500개 식사를 하지만, 의미 있는 한끼 식사가 평생 몇 번일까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레스토랑과 관련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blin-drestaurant.modoo.at/) 참조.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여수 청소년박람회 특별연주회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단장 조현웅)는 지난 26일 여수에서 열리고 있는 ‘제13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초청돼 특별연주회를 가졌다. <사진>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는 전남지역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이 클래식 음악 무상교육을 통해 실력을 쌓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창단해 활동 중이다.

이들은 ‘꿈꾸는 대로 미래를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관객에게 친숙한 클래식 곡을 선보였다. 조현웅 단장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력을 뽐내고 자신감을 쌓도록 돕고,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영산중·고 총동문회, 장학금 600만원 수여

영산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재진)는 지난 29일 모교 도서관에서 2017년도 상반기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은 이재진 총동문회장, 이기준 수석부회장, 이재남·김성봉 상임부회장, 총동문회, 중·고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 축사, 격려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총동문회는 올해로 두 번째 맞이한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이상민(고 2년)군 외 11명에게 모두 600만원을 지급했다. 전국체전에서 우수

한 성적을 낸 탁구부에도 100만원 격려금을 함께 지급했다. 이재진 회장은 축사에서 “총동문회 장학금은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영산인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선배들의 배려와 정성이 담겨 있다”며 “꿈을 향한 도전에 다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병만 교장은 격려사에서 “선배들의 소중한 뜻을 가슴에 담아 학업에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남부대 치안 업무협약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대장 심정환 경감)는 지난 29일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치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을 통해 매달 2차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과 지구대 경찰관들이 함께 학교 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내 취약지역 순찰 및 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원룸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을 예방순찰

을 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음주운전 혐의 입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1)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29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오전 7시18분(동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주피터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팜비치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법원 출두를 서약하고 풀려났다. 앞서 그는 오전 3시께 자신의 저택이 있는

주피터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다고 한다. 우즈의 혈액 알코올 농도와 차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